



ESPERANTO

에스페란토의 날

2016년 7월 26일

국제 에스페란토 대회, 인도네시아 반둥



공정한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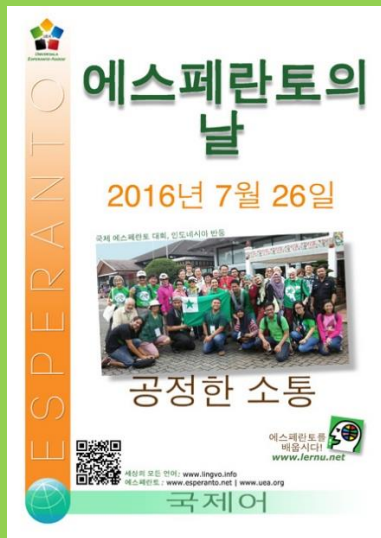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언어; www.lingvo.info
에스페란토; www.esperanto.net | www.uea.org

에스페란토를
배웁시다!
www.lernu.net



국제어

7월 26일
에스페란토의 날



26-a de julio
Esperanto-Tago



7월 26일 에스페란토의 날, 언어 정의의 날

왜 에스페란토의 날인가?

지금 세계에서 에스페란토의 날이 왜 필요한가?

1887년 7월 26일 국제어 에스페란토에 대한 책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 에스페란토의 목적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이다. 에스페란토는 매우 중립적이고 언어 평등권을 바탕으로 함으로, 에스페란토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은 공정하다. 세상의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우월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에 제안한다. 7월 26일을 "언어 정의의 날"로 기념하자. 문화, 국민, 소수민족의 상호관계도 정의로워질 것이다.

공정한 의사소통이란, 모든 대화자가 동등한 언어 환경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을 할 권리를 가진 반면, 대화 상대자는 상대방의 말로 소통해야 한다면, 평등한 상황이 될 수 없다.

다른 언어들보다 우위에 있는 일부 언어를 택한 사람들은 그들 언어에 지배적 특권을 부여하고 세계무대에서 군림한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대다수는 정치, 교육, 경제, 방송매체와 사회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은 더욱 고착된다.

누구나 자기 말을 할 권리가 있다. 보배 같은 자기 말을 가질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자기표현의 자유와 자기 말을 할 권리는 분리될 수 없다.

다중언어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를 알고 있다. 평등한 세계로 나아가려면 유네스코에서 추천하는 삼중언어구조가 이상적이다. 모국어와 나라말과 국제어다.

- 모국어, 사람들은 나라말이나 국제어가 아닌 자기 말을 쓰고 싶어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 하나의 지역어, 일정 지역 안의 통용어는 그 지역에 걸쳐있는 여러 나라말이나 다양한 종족어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수월하게 한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통용되는 스와힐리어가 좋은 예다.
- 하나의 국제어, 오늘날은 다양한 국가가 공존하는 세계화 시대다. 세계인 모두가 평등한 조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국제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모든 나라는 삼중언어 범주에 든 세 개의 언어를 공식적 인정하고, 사용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삼중언어의 범주에 드는 언어는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다만, 국가는 종족과 종교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국가 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를 위해서 하나의 공통어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국어로 말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국제어 에스페란토는 국제 사회에서 모국어로 말할 권리를 굳건히 하는 중립의 수단이다. *"세계의 모든 인공언어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은 에스페란토다.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진지하게 고려하면 에스페란토는 많은 이점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 ... 에스페란토는 어떤 '자연'어보다 짧은 시간에 쉽게 배울 수 있다. 규칙적이고, 논리적이고,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에스페란토로 잘 표현할 수 있다 [...]” 고 세계적인 언어학자 토베 스쿠트나브-캉가스(www.tove-skutnabb-kangas.org)가 말했다. 그 외에도, 에스페란토는 잠시뿐일 권력의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현재 그런 권력을 영어권 나라들이 쥐고 있어서, 영어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나, 50 년 후에도 그럴까? “세계 모든 언어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 그것이 에스페란토가 기여해야 할 바” 라고 언어 학자인 로버트 필립슨 박사(www.cbs.dk/en/staff/rpibc)가 조언한다.

- 잠시뿐인 권력을 쫓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때다. 우리는 세계인들 간의 평등한 조건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 에스페란토는 공정한 의사소통에도달하기 위한 도구이다.

65 개 언어로 알아보는
에스페란토
www.esperanto.net



세계적인 에스페란토
무료 학습 사이트
www.lernu.net



서울 에스페란토 문화원
매월 에스페란토 입문 강습
www.esperanto.kr



✉ esperanto@saluton.net

2017 년 여름 서울에서 세계인들이 통역 없는 토론의 장을 펼칩니다
지금부터 에스페란토를 시작하세요
당신도 통역 없는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 협회

<http://www.esperanto.or.kr/>

✉ kea@esperanto.or.kr ☎ +82-2-717-6974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UEA): www.uea.org

광고저작권: © Peter Oliver/ UEA 외 각국 번역자

본문: ZPI: 세계에스페란토 협회 정보 팀

한국어 번역 : 최은숙(Esti) - © Stefano Keller, junio 2016